

상용차 위기 극복 민·관 손잡아

군산시, 지자체·완성업체·부품업체 등과... 기술 개발사업 협력 강화

군산시는 3일 민간기업(투자기업, 제품개발기업)과 함께 올해 사업비 40억 원(도10, 시5, 김제5, 민자20)을 투입해, 자동차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 상생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기술개발 사업은 도내 부품업체 일감해소와 수입부품 및 시스템의 국산화 등 사업화를 위해 지자체-상용차 완성업체(투자기업)-부품업체(제품개발기업)가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조성에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수요기반형 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상용차 생산량 급감에

따른 전북지역 상용차업체(완성차, 부품업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전라북도 상용차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및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지난 6월 착수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투자기업 공모 선정 결과 티타태우상용차(주)가 선정됐으며 군산 7개, 김제 5개의 부품업체가 운전석 정면 계기판(IP ASSY), 공기배출구(AIR VENT ASSY) 등 상용차 부품 6종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용차 수입부품과 시스템의 국산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130명, 4천여원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내년에도 수입부품의 국산화와 지역 부품업체 자체생산을 유도하는 제품 개발 업체를 육성하고, EV 차량에도 적용 가능한 부품개발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2년 사업비는, 도비 25억, 시 20억, 김제시 5억, 민간기업 5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일감부족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에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용차 부품관련 기술력 제고 및 매출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힐링 여가문화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우울감 극복·정서적 안정'

익산시, 고위기 청소년 여가문화 체험 호응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힐링 여가문화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달 28일 여수시를 방문해 고위기 청소년 등 17명을 대상으로 힐링 여가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가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 우울 극복과 정서적 안정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위기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가 파트너십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여수 예술랜드를 방문해 조각공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트라이트 전시 카트체험, 공중그네, 짚코스터, 해상케이블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술랜드에서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 대부분이 경치 및 체험활동에 매우 만족했다.

시 관계자는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극복과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852-1388)는 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축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대규모 인파 몰리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익산시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역축제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축제와 행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9일 진행된 제1회 익산보석문화도시 보물찾기 캠프축제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통제를 위해 사전 신청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다. 사전현장 점검결과 참여자가 몰릴 것을 대비

해 현장 접수자를 1천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도 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의료, 안전, 행사 운영 지원 요원 등 약 100여 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2개 지점에 의료 부스 설치, 구급차 대기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보물찾기 쪽지를 숨길 수 없게 되면서 행사관계자가 즉흥적으로 쪽지를 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를 인지한 시는 즉각 프로그램 진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행사 중단 후에는 축제추진위원회와 논의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쪽지를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추가적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시는 지역사회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참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강화해 안전한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교육 시범사업 진행

익산시가 읍·면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올바른 인권의식 조성에 앞장선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오산면 소재 영민초등학교 외 2개소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익산시가족센터와 익산글로벌문화관 강사들이 각각 이론과 체험교육을 맡았다.

3일에는 용동면 흥왕초등학교를 방문해 놀이와 악기를 통한 세계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전통 의상인 '하오자이'를 입은 베



트남 강사의 알기쉬운 다문화이해교육(인사말, 전통의상, 문화 등)을 시작으로 의상 및 놀이체험을 진행하며 참여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잠자리 모양의 베트남 전통 장난감 '쭈온 쭈온'과 우리나라 공깃불

이와 비슷한 '저이쭈엔' 놀이 등을 통해 친구들과 신나고 흥미로운 세계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접근성이 낮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한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75곳 국가지점번호판 운영 응급 대응

익산시가 재난위험지역에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설치해 응급상황 대응 대비를 강화한다.

시는 천호산 입도, 담재산 등산로, 배산공원 등산로 등 주요 지점에 국가지점번호판 4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지점번호판은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예상지역을 고려해 총 275개소가 운영된다.

시는 2017년 미륵산 및 함라산 등산로 일원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와 자전거도로 등에 조성해온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시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훼손, 망실된 국가지점번호판을 즉시 정비해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위치표



기 체계 정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통행이 잦은 지역과 주요 산책길 등산로 등 도로 명이 없는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위급상황시 신고와 출동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군산시는 3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산림복지과 산불종합상황실 및 23개 읍면동에서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까지 기상 상태별 탄력적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대 45명, 산불감시원 50명을 선발해 산불 종합 관리 지역에 배치해 산불감시, 산불 예방 홍보, 산불위험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신속 신고 등 초동 진화와 현장 업무를 실시한다.

산남철 산림복지과장은 "가을철 산행 등으로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불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치매안심 안전망 구축 가맹점 모집

군산시는 3일 치매안심마을(중앙동 및 흥남동) 내 치매안심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중앙동 및 흥남동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사업 홍보와 가맹점을 모집한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업소를 말한다.

지정절차는 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접수 후 치매파트너 교육(사업장 전체직원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해야하며 센터는 가맹점 현관 전달 및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치매안심사업 홍보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2일과 3일 현장에 나가 홍보물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많은 매장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